



2



글·사진: 이희영 기자(축산신문)

화제의 오리농장 전남 강진 '탐진농장'

◎ 좌우 이동형 니플 개발로 깔집 사용량 획기적으로 절감, 축사바닥환경개선으로 출하 성적도 좋아져 소득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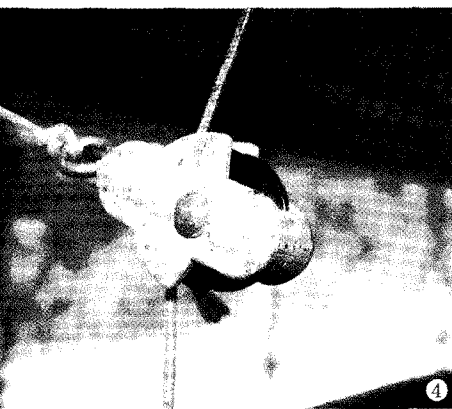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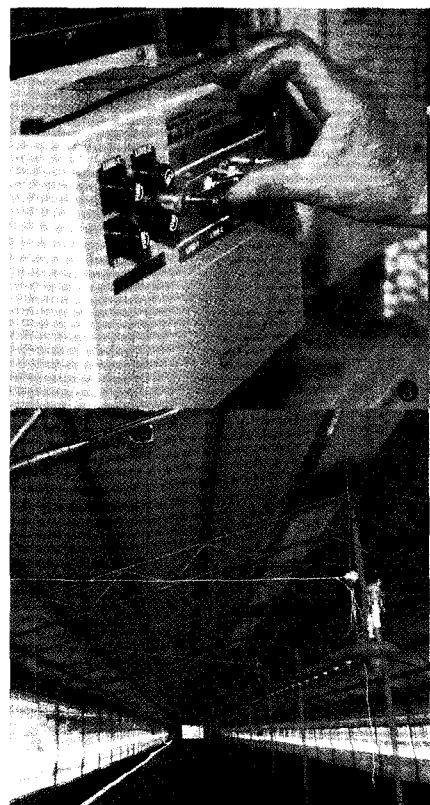
국내 한 오리농가가 좌우 이동형 니플을 이용해 연간 왕겨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남 강진군 동면 장산리에서 오리 2만수 규모의 탐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송영갑 대표이다.

송 대표가 개발한 좌우 이동형 니플은 기존 제품들이 상하로 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보완한 제

품이다. 특히 좌우로 이동하기 때문에 니플 밑에 물이 고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축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더욱이 니플을 주기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왕겨 사용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2만수 규모의 농장에서 연간 1천500만~1천600만원의 왕겨 구입비용을 절감했다. 따라서, 기존대로 사육할 당시 들어갔던 왕겨 구입비용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이어졌다.

좌우 이동형 니플을 설치하기 전에는 5톤 차량 1대의 왕겨 구입비용은 40만원 선이었으나, 연간 1회전 당 8



- ① 탐진농장 송영갑 대표
- ② 송 대표가 개발한 니플로 오리들이 물을 먹고 있는 모습. 출하를 1주일 앞두고 있지만 오리들이 깨끗하다.
- ③ 송 대표가 개발한 좌우 이동형 니플뿐만 아니라 옆에 도출을 연결시켜 모터로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다.
- ③ 니플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
- ④ 줄이 영키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르레를 달아냈다.
- ⑤ 축사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대분의 왕겨가 소요돼 연간 6회전시 총 48대분의 왕겨를 사용해 왔지만 지금은 10%에도 못 미치는 왕겨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왕겨 사용량 감소 등 직접적인 소득은 물론 축사 환경 개선으로 인한 출하 성적도 덩달아 높아져 일반 농가에 비해 사육비도 높게 받고 있다. 또, 출하일령은 평균 42일령에 출하체중이 3.2kg으로 출하일령 단축에 따른 사료값 절감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송 대표가 개발한 좌우 이동형 니플의 원리는 기존의 상하로 움직이던 니플에 줄을 연결해 모터를 이용,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좌우로 최대 2m까지 이동할 수 있어 수시로 이동시켜 축사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뿐만 아니라 축사 로터리 작업시에도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여 훨씬 수월하고 수시로 로터리 작업을 해 주기 때문에 축사환경도 좋아진다.

송 대표가 이 같은 기술을 개발한 것은 오리업을 시작한 이후 기존 관행대로 할 경우 많은 불편한 점이 많았

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축사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이 들어가기도 하며, 초기 개발 제품은 완전 수동으로 비용은 최소한으로 들일 수 있지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약간의 비용을 더 들여 모터를 달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는 등 지금의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송 대표는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 설치비용이 200만원 정도지만, 업체를 통해 설치할 경우 평당 약 4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송 대표는 오리를 사육하기 시작한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은 초보 축산인이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송 대표는 2007년 귀농을 결심하고 오리업에 뛰어들었다. 오리사육 경력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현재 소속 계열사의 농가 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송대표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비결은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육에 접목시켰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발한 좌우 이동형 니플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좌우 이동형 니플을 개발한 것도 기존 관행대로 사육하면 축사에 물이 고이고 깔짚을 수시로 바꿔줘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하게 된 것이다. 또, 축사에 물이 고일 경우 출하를 앞둔 오리들은 지저분해지기 일쑤며 냄새로 인해 작업시에도 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함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요인으로 앞으로도 기존 관행에서 탈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오리농가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게 송대표의 각오다.

송 대표는 좌우 이동형 니플과 함께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발효시키면 깔짚을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송 대표의 미생물 발효 방법은 단순히 깔짚 위에 미생물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불편하지만 초기에 완벽히 발효시키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오리 입식 전에 왕겨와 미생물을 섞어 여름철에는 10일정도, 겨울철에는 15일정도 충분히 발효시킨다. 발효시킬 때도 처음 3일간은 매일 교반시켜 주고 이후에는 3일에 한 번 교반시켜 준다. 이렇게 할 경우 왕겨가 균일하게 발효되기 때문이라고 송 대표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깔짚이 충분히 발효돼 오리들이 파먹기까지 한다. 때문에 왕겨 사용도 오리들이 먹고 자연 건조되는 부분만 보충해 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오리들도 균일하게 크고 증도 지지 않아 한꺼번에 출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송대표가 개발한 좌우 이동형 니플을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오리 농가들에게 하루 속히 보급돼 농가들이 소득이 높아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더욱이 송대표는 이 기술이 공개될 경우 축산기자재 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결국 오리농가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이다.

특허를 신청한 것도 특허를 획득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보다 많은 오리농가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깔짚 발효 방법의 경우 농가들이 조금 귀찮겠지만 초기에 설치를 통해 이후에는 보다 더 쉽게 깔짚관리가 가능해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갑 대표는 “지난 2007년 귀농해 오리사육에 뛰어들었으나 기존의 관행에 따른 사육을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며, “이 기술을 통해 돈을 벌기 보다는 하루 속히 오리 농가들에게 보급돼 농가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2만수 규모의 농장에서 사료비 절감 등 여타 비용 절감은 제외하고라도 왕겨 구입비용만 연간 1천500만~1천600만원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국내 전체 오리농가들에게 보급 한다면 오리농가들의 소득 증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축산과학원 최희철 연구관은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니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니플을 주기적으로 옮겨줄 경우 오리농가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축사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농가들에게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